**Korean J Relig Educ** **종교교육학연구**
Vol. 86, pp. 1-20, September 2026 pISSN 1229-6627
https://doi.org/10.58601/kjre.2026.09.30.01 eISSN 2672-1767

#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the Post-Religious Era: Harmonizing Invisible Religion and Digital Religion

Kwonsoo Na*
Daejin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reconceptualizes religious literacy to encompass invisible religion and digital religion, around which Korea's religious landscape is being reorganized amid a non-religious majority, addressing existing discourse's implicit presupposition of institutional religion.

**[Contents]** First, invisible religion and digital religion, though emerging via different paths amid seculariz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prove structurally linked and mutually amplifying. Second, discourse remains confined to institutional religion; retaining the knowledge-empathy-practice framework, this study extends its scope to both phenomena to aid conflict preven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ird, it operationalizes this through case-based content, digital-literacy-linked teaching methods, and institutionalized general education with textbook development, while also proposing a secondary-university sequencing scheme.

**[Conclusions]** This reconstruction offers a common language for religious and non-religious citizens to understand one another, requiring institutionalization as a neutral subject, digital textbooks and case databases, and instructors trained in religious studies and digital literacy, sustainable only through cooperation among academia, religious bodies, and government.

**[Keywords]** Post-religious era, Religious literacy, Invisible religion, Digital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5S1A5A8008983).

*** Corresponding author** Kwonsoo Na (Lecture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E-mail : luozi@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 탈종교 시대의 종교문해력 교육: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의 조화

나권수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무종교인이 과반을 차지한 한국 사회에서 종교 지형이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를 축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두 현상을 포괄하는 종교문해력 개념과 교육을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 종교문해력 담론이 제도 종교를 암묵적 전제로 삼아온 논의의 공백을 보완한다.

**[연구 내용]** 첫째, 세속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가 각기 상이한 경로로 출현했지만, 실제로는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를 증폭하는 구조적 연관성을 밝혔다. 둘째, 종교문해력 개념의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여 그 대상이 제도 종교에 머물러 있음을 파악하고, 기존의 역량 구조(지식・공감・실천)를 유지하되 대상을 두 현상으로 확장하는 재개념화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확장된 종교문해력이 종교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이라는 공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셋째, 이러한 재구성은 사례 기반의 교육 내용,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 교양교육 제도화 및 교재 개발이라는 세 층위로 구체화하였으며,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양교육을 잇는 계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은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서로를 읽어내는 공통의 언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 중립적 교과로서의 제도화, 디지털 교과서 및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교학적 소양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겸비한 교수자 양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화는 종교교육학계, 종단, 정부의 삼각 협력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주제어]** 탈종교 시대, 종교문해력, 보이지 않는 종교, 디지털 종교, 종교교육

**Received** August 22, 2026 / **Revised** September 07, 2026 / **Accepted** September 09, 2026

# Ⅰ. 서론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이 유례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종교인구 통계에서 무종교인이 과반을 차지한 지 오래이며, 근래의 조사들은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보고하기도 한다(Gallup Korea, 2026. 3. 26.). 특히 청년 세대의 이탈이 가파르다는 사실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부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성 교세의 위축, 종교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종교적 무관심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탈종교 시대가 현실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제도 종교의 퇴조를 곧 '종교적인 것'의 소멸로 읽는다면 오늘의 지형을 절반만 보는 셈이다. 특정 교단에 적을 두지 않으면서도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들, 명상과 수련으로 초월을 추구하는 이들, 이른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사람들이 무종교인 통계 안에 상당수 섞여 있다. 종교 단체 가입 여부라는 이분법 대신 '얼마나 종교적인가' 또는 '어떻게 종교적인가'라는 물음으로 종교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제안(Chong, 2025: 130)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일찍이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보이지 않는 종교(invisible religion)'를 논의했던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의 통찰이 새삼 소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Luckmann, 1967). 실제로 최근의 연구는 영성이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전통적 경계를 넘나들며 이를 재구성하는 매개적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Chung, Choe, & Jang, 2025: 1). 종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도 바깥으로 스며들어 다른 얼굴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의 진보라는 또 다른 축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종교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urn)은 신앙 형태 자체를 본질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예배와 순례, 상담과 포교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신앙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이디 캠벨(Heidi Campbell, 2012)이 정식화한 '디지털 종교(Digital Religion)' 논의가 국내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Kim, 2022), 온라인 성지와 소원 댓글, 종교적 신조어의 유행 등 한국 특유의 온라인 종교문화에 관한 실증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Shim et al., 2023). 주목할 점은 이 두 흐름의 결합이다. 제도를 벗어난 영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확산되고, 디지털 공간은 비제도적 종교성이 서식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탈종교 시대 종교성이 재구성되는 두 국면인 것이다.

이러한 종교 지형의 재편은 종교 영역에 그치지 않고 비종교적 영역으로도 번져간다. 국가 간 비교 조사에서 한국은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정치 갈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나라로 보고될 만큼, 종교와 정치·사회적 균열이 깊게 얽혀 있다(Park, 2023: 41). 여기에 디지털 공간 특유의 빠른 확산성이 더해지면서 종교 관련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신흥 종교 집단의 공격적 포교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제도 종교의 울타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영성을 표방

한 상업주의와 종교를 앞세운 폐해가 개인의 삶을 침식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달라진 종교 지형을 읽어내는 역량, 곧 ‘종교문해력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배경이다.

문제는 이렇게 달라진 지형을 읽어낼 사회적 능력이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무지, 이른바 ‘종교적 문맹’이 종교에 대한 편향과 차별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대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 아래 대학 교양교육 차원의 대응을 모색한 논의가 일찍이 선행된 바 있으며(Na & Youn, 2019), 이후 국내 첫 종교문해력 조사를 계기로 그 사회적 활용 방안이 검토되었다(Seong, 2024). 아울러 “종교문해력은 다종교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는 작업가설적 정의 아래 종교 문해 역량을 지식, 공감, 실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종교교육에서 요구되는 출발점 행동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Park, 2023: 56). 종교교육 연구에서도 현주소를 점검하고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정립하려는 모색이 이어졌고(Na & Youn, 2022), 수강생 다수가 비종교인인 강의실의 현실을 반영한 수업 설계 연구도 발표되었다(Yun, 2023). 이러한 국내 논의는 종교문해력을 시민적 소양이자 정책적 실천의 문제로 다루어 온 해외 학계의 흐름(Kim, 2025: 78-81)과도 궤를 같이한다. 종교문해력의 의미와 역할에 주목해 온 일련의 연구는 이 개념의 시의성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근본 방향까지 가늠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기존 논의에는 뚜렷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종교문해력 담론이 전제해 온 대상은 대체로 교단, 교리, 의례를 갖춘 제도 종교였다.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상호 이해라는 문제의식은 확고하지만, 정작 무종교인 과반 시대에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비제도적 영성과 디지털 종교 현상을 해석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즉, 제도 밖의 영성과 디지털로 매개되는 신앙 실천은 아직 종교교육 담론의 시야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다. 읽어야 할 텍스트는 달라졌는데 독법은 옛것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 요컨대 종교문해력 교육을 전통 종교에 대한 소양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라는 새로운 현상에 상응하도록 전면 재구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한다. 첫째, 비제도적 신앙으로 간주해 깊이 논의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종교 현상을 종교문해력의 핵심 요소로 편입해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둘째, 종교가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얽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종교문해력을 사회통합과 상생의 도구로 자리매김한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초·중등 교육과정 및 대학 교양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더욱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접근을 병용한다. 종교사적 접근으로 두 현상의 연원과 전개를 추적하여 이들이 갑작스러운 신종 현상이 아니라 전통적 신앙의 현대적 변형임을 밝히고, 미시적 접근으로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 수준에서 관찰되는 구체적 양상, 이를테면 온라인 종교 콘

텐츠와 그 수용 방식을 분석한다. 또한, 종교교육적 접근으로 앞선 성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옮긴다. 이때 지향점은 특정 신앙의 내면화를 목표로 하거나 종교성의 고양을 꾀하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라는 문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다(Youn, 2007: 247).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장에서는 세속화와 과학의 도전이라는 맥락 위에서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를 축으로 탈종교 시대의 종교 지형이 재편되는 양상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종교문해력 개념의 전개를 검토하고 그 공백을 확인한 뒤, 두 현상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며, 확장된 종교문해력이 수행해야 할 사회통합의 과제를 논한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 내용(사례 기반 콘텐츠), 교육 방법(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결합), 교육 기반(교양교육 제도화와 교재 개발)의 순서로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이 같은 논의는 종교문해력 담론의 지평을 탈종교 시대의 실제 종교 경험에 맞게 확장함으로써, 종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다종교이면서 탈종교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소양을 기르는 데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Ⅱ. 탈종교 시대 종교 지형의 재편

### 1. AI 시대의 종교 : 세속화와 과학의 도전

오늘의 종교 지형을 규정하는 첫 환경은 가속화된 세속화이다. 종교적 세계관이 사회 운영의 원래 자리를 과학적 합리성에 내어주는 과정은 근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 종교인구 조사 결과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비율은 2025년 기준 40%와 60%로 집계되었으며, 20・30대 종교인 비율은 각각 24%와 29%로 조사되어 무종교가 청년 세대의 보편적 기본값으로 자리 잡았다(Gallup Korea, 2026. 3. 26.).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하락세가 세계사적 보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등 주요 종교의 신자 수는 지구적 차원에서 오히려 늘고 있어, 주요 종단 신자 수의 총체적 감소를 겪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세계적인 추세와 상반되는 면이 있다(Lee, 2025: 2). 한국의 탈종교화는 서구 세속화론의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고유한 맥락 위에서 해명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세속화를 둘러싼 이론적 대립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합리적 사고의 발달과 전통 공동체의 약화로 종교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는 고전적 세속화론에 맞서, 종교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기성 종교가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 사람들이 개인적 영성으로 이동한다

는 설명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다(Chong, 2025: 130).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통계상의 무종교인 증가는 종교적 수요의 소멸이 아니라 공급 구조의 실패, 곧 제도 종교가 매력을 잃어가는 과정의 지표로 읽힌다. 여기에 종교 단체와 지도자들의 일탈, 배타적 행태에 대한 실망 역시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종교인 자체를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흐름도 뚜렷해졌다. 일찍이 한국 무종교인의 규모와 성격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구적 연구(Kang, 1997) 이래, 전국 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무종교인이 심리적 평안과 같은 나름의 종교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실증한 연구(Chong, 2024), 종교 지형 전반의 이동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Lim, 2025)가 이어지면서, 무종교는 결핍이나 잔여 범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설명을 요구하는 실체로 부상하였다. 무종교인이 다수자가 된 사회에서 '종교 없음'은 더 이상 일탈이 아니라 기본값에 가까워졌고, 심지어 무종교를 하나의 신종교적 현상으로 읽자는 제안(Woo, 2022)까지 등장하였다.

이 국면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문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AI는 산업의 도구를 넘어 인간 이해의 준거틀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영성'과 '초월'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논쟁이 종교 영역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AI가 인간을 어디까지 닮아갈 수 있는지, 나아가 AI도 영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영성이 인간 고유의 속성인가라는 종교인간학의 근본 문제를 정면으로 소환한다. 초지능과 신적 존재로 화할 것이라는 예언적 담론,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 서사가 이러한 논쟁의 대표적 지점이다. 이 담론은 기술이 가져올 유토피아적 기대와 디스토피아적 공포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과학이 종교의 자리를 잠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종교적 상상력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종교계와 학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응답하여, AI 시대 전통 종교의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요컨대 세속화와 과학의 도전은 종교를 소거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 변모가 빚어낸 두 갈래가 바로 제도 밖의 영성과 디지털로 매개된 신앙이다.

## 2. 보이지 않는 종교: 제도 밖으로 확산되는 영성

'보이지 않는 종교'는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이 저서 The Invisible Religion(1967)에서, 종교를 교회 출석이나 교리 신봉 같은 제도적 지표로만 재던 당시 세속화론의 한계를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그는 근대 사회의 제도적 분화 속에서 교회가 사회 전체의 성스러운 우주(sacred cosmos)를 관장하던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그 쇠퇴가 종교의 소멸이 아니라 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로 귀결됨을 논증하였다(Luckmann, 1967). 제도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서 종교는 보이지 않는 개인의 내면과 일상으로 스며들어 계속 작동한다는 것이다. 반세기 전의 이 통찰은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뒤늦게, 그러나 확실하게 실증되고 있다.

국내 학계의 개념적 응답도 다층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성해영은 크리팔(J. J. Kripal)의 '무종교의 종교(religion of no religion)'라는 역설적 표현을 원용하여 "전통적인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목격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으로 풀이하였다. 언뜻 종교의 부정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당사자들 스스로 여전히 '종교적'이라 자처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종교성을 드러낸다(Seong, 2017: 2). 우혜란은 조직종교의 쇠퇴와 탈제도적 종교성의 확장이라는 동시대 종교 지형의 특징을 포괄하는 바우만(Zygmunt Bauman)의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 개념으로 '종교 이동(religious switching)'으로 표면화되는 현대인의 종교적 성향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였다(Woo, 2016: 33, 54-60). 서구에서 빌려온 개념들은 한국적 현실에 그대로 포개어지기보다는 조정과 재구성을 거쳐 수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정재영은 전후(戰後) 영국인의 종교성을 표현한 데이비(Grace Davie)의 '소속 없는 믿음(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나 미국의 비제도권 신앙인을 분류해 온 얼랜드슨(Sven Erlandson)의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BNR)' 범주와 같은 서구의 개념틀을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한 뒤 한국 무종교인의 성격을 실증하였다(Chong, 2024: 141-143). 이들 연구는 한국 무종교인의 성격을 곧바로 설명하기보다는 한국적 맥락에 맞는 개념 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목할 것은 이 비제도적 영성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현장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실증 연구는 초월영성상담의 부상에서 보이는 심리치료 영역의 영성, 박물관 전시와 음악 공연에 스며든 영성,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영성이라는 세 영역을 추적하여 영성이 종교와 세속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현장을 보고한다(Chung, Choe, & Jang, 2025: 1). 명상과 요가, 웰빙과 자기계발, 사주와 타로에 이르기까지, 제도 종교의 시선에서는 종교가 아닌 것들이 사실상 종교가 수행해 온 의미 부여와 치유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종교는 이제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탈종교 시대 종교성의 주된 서식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확산을 한국 종교사의 장기 지속 위에서 읽으려는 시도도 주목된다. 한국인의 종교성이 유교·불교·무속·기독교를 큰 갈등 없이 겹쳐 살아온 중층적 구조를 지녀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늘의 탈교회 신자들이 서구의 무종교인과 달리 "중층신앙적 영성의 재발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다(Lee, 2025: 2). 제도 이탈이 곧 서구식 세속화로 직행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습합적 종교성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이 전망은, 보이지 않는 종교가 낯선 수입 개념이 아니라 오래된 종교 문법의 현대적 재연일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이 영역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성을 표방한 상업주의와 치유를 앞세운 금전적 편취, 강압적 통제와 성적 착취를 일삼는 집단의 침투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위협한다. 종교적 외피를 두른 착취를 판별하는 기준은 특정 교리의 정통성 여부가 아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단순 의혹 제기나 온라인상의 소문, 다수의 통념이나 종교적 편견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 발생 여부와 법적 판단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 검증과 신앙 내용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 종교문해력 교육의 핵심 원칙이다. 제도권 밖의 종교 활동이 확산할수록 올바른 판별 책임은 이제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가중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의 개입이 더욱 절실하다.

### 3. 디지털 종교: 매체 환경 속에서 재구성되는 종교

종교성의 또 다른 서식지는 디지털 공간이다.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를 추적해 온 캠벨의 디지털 종교 논의(Campbell, 2012)가 보여주듯, 온라인은 종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에 그치지 않고 신앙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독자적 환경으로 진화하였다. 팬데믹은 이 전환을 비가역적으로 만들었다. 온라인 예배의 경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혼종적 교회(Hybrid Church)’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고, 신자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매이지 않고 여러 형태의 참여와 소통을 오가며 ‘다중적 소속감(multi-belonging)’을 형성한다는 관찰은 종교적 문법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준다(Kim, 2022: 757). 가상현실 공간이 초월과 초연결의 감각을 매개하며 그 자체로 종교적 공간이 되어간다는 신학적 성찰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국내 학계가 이 주제에 눈뜬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보미디어 시대의 종교 연구를 촉구한 논의(Moon, 2008)와 디지털 환경 속 신종교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 작업(Ahn, 2023)이 이미 토대를 놓았고, 팬데믹은 그 논의를 강단에서 현장으로 옮겨 놓았다. 방역 지침 아래 온라인 예배를 강제로 경험한 한국 교회는 디지털 신앙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익힌 셈이 되었다. 이 강제된 학습의 결과가 지금 목격되는 종교의 디지털 전환이다.

한국의 온라인 종교문화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이 전환의 구체적 양태를 보여준다. 교단 종교의 온라인 활동뿐 아니라 사주·타로 같은 비제도권 종교 활동, 온라인 성지와 소원 댓글, ‘지름신’과 ‘갓생’ 같은 종교적 신조어의 유행까지 살핀 연구는 “단순한 형태의 종교적 관념과 활동의 부상이 디지털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특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Shim et al., 2023: 188).”라고 결론짓는다. 짧고 가벼운 콘텐츠 소비에 최적화된 매체 환경이 종교적 관념과 실천의 형태마저 규정하는 것이다. 무속의 최근 행보는 그 압축판이라 할 만하다. MZ세대와 디지털 플랫폼이 만나면서 무속은 신앙에서 문화콘텐츠이자 일상의 심리 서비스로 옷을 갈아입고 ‘생활 무속’으로 확산되고 있다(Na, 2026: 1288).

이상의 검토는 하나의 구조적 사실로 수렴된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는 각기 다른 경로로 출현했으나 실제로는 서로를 증폭시키는 관계에 있다. 제도를 떠난 영성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유통되고,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과 접근성은 소속 없는 신앙이 부담 없이 머물 자리를 제공한다. 사주 앱과 명상 앱, 온라인 성지순례와 AI 상담이 한 사람의 스마트폰 안에 공존하는 풍경은 두 현상의 결합이 이미 일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이 새로운 종교 지형이 기존의 종교 이해 틀로는 읽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달라진 지형에 상응하는 독해 능력, 곧 종교문해력의 재개념화가 요청되는 지점이며, 이것이 다음 장의 과제이다.

# Ⅲ. '종교에 관한' 종교문해력 교육

## 1. 종교문해력 개념의 전개와 공백

'문해력'은 기초적인 읽기・쓰기 능력을 넘어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요컨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문해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Kim, 2021: 20-21). 이 개념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외연을 넓혀 왔고, 오늘날에는 미디어, 데이터,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역량 일반을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텍스트의 독해를 넘어 융복합적 의미 구성을 요하는 다중문해력(multi-literacies)으로 확장되고 있다. 종교문해력은 이 확장의 종교판이라 할 수 있다. 서구 학계에서는 개신교 중심의 종교 지식 결핍을 시민사회의 문제로 진단한 프로데로(Prothero) 이래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롸이트(Wright)에서 무어(Moore)에 이르는 일련의 종교문해력에 대한 관점들이 하나의 연구 전통을 형성하였다. 종교문해력을 범주, 성향, 지식, 기술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 딘햄(Dinham)의 틀은 이 전통이 단순한 교양 지식론을 넘어 역량론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Park, 2023: 53-54).

국내의 사정은 대조적이었다.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무지가 편견과 오해를 낳아 공존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학 교양교육 차원의 종교교육을 모색한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Na & Youn, 2019), 종교계는 물론 종교학계도 이 개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Seong, 2024: 10). 이 무관심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감정/정서 문해력'을 비롯해 미디어 문해력, 법률 문해력, 과학기술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등 분야별 문해력 개념이 앞다투어 등장하는 동안에도 종교 영역만은 예외로 남았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다양한 종교들이 크게 갈등 없이 공존해 왔기 때문에 문해력의 필요를 상대적으로 덜 느낀" 드문 사례였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Park, 2023: 43). 그러나 공존의 관성이 이해의 깊이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갈등 없는 병존은 상호 무관심의 다른 이름일 수 있으며, 무관심 위의 평화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열한다.

전환점은 2023년 마인드랩(MindLab)의 국내 첫 종교문해력 조사였다. 이를 계기로 "①종교와 종교 현상의 이해도 파악 및 제고, ②종교의 평화적 공존 등 사회 문제 해결 기반 마련, ③바람직한 종교적 신행 방식 모색, ④공공 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효과성 제고"라는 사회적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고(Seong, 2024: 9), 역량 개념에 기초해 지식・공감・실천의 세 영역으로 종교문해력을 진단하려는 모형도 마련되었다(Park, 2023: 56). 개념 논의가 진단과 활용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성취의 이면에 공백이 있다. 기존 논의가 측정하고 함양하려는 대상이 대체로 제도 종교의 좌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진단 모형의 지식 요인은 인물과 장소, 의례와 제

도, 역사와 교리로 구성되어 있고, 서구의 진단 도구 역시 “여전히 종교에 대한 지식 중심의 퀴즈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ark, 2023: 57). 교단과 교리를 갖춘 종교를 아는 것이 곧 종교를 아는 것이라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 장에서 확인했듯 오늘의 종교성이 제도 밖의 영성과 디지털 매개의 신앙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 전제 위에 세워진 종교문해력은 정작 동시대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종교 현상 앞에서 침묵하게 된다. 사주 앱을 열고 유튜브 명상을 틀며 온라인 성지에 소원 댓글을 다는 세대에게, 세계 종교의 교리 지식만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언어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2.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로의 확장

공백을 메우는 길은 종교문해력의 대상과 역량을 함께 넓히는 데 있다. 우선 대상의 확장은 종교 개념 자체의 학문적 갱신에 기댈 수 있다. 종교학의 역사에서 “종교는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신앙적 차원을 넘어 인간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Koo, 2022: 71).” 이는 종교문해력의 ‘종교’가 교단 종교로 한정될 이유가 없음을 말해준다. 제도 밖 영성과 온라인 신앙 실천을 종교 이해의 정당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자의적 확대가 아니라 종교 연구의 본령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역량의 확장은 기존 모형을 폐기하는 대신 그 세 영역을 새로운 대상에 상응하도록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지식의 영역’에는 세계 종교의 전통에 더해, 보이지 않는 종교의 개념과 계보, 디지털 종교의 유형과 작동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루크만과 SBNR을 알지 못하면 무종교인 과반이라는 통계를 오독하게 되고,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논리를 모르면 온라인 종교 현상의 절반을 놓치게 된다. ‘공감의 영역’은 교단 소속 신자만이 아니라 소속 없는 신앙인, 영성 추구자, 무종교인까지 존중의 지평에 넣어야 한다. 다종교 사회의 관용이 이제는 ‘종교 간’을 넘어 ‘종교와 비종교 간’, ‘제도와 비제도 간’의 상호 이해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천의 영역’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결합이 관건이 된다. 변화 관리력, 정보·데이터 활용력, 디지털 소통력, 디지털 창의력을 축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모형(Kim, 2024: 813)은 종교 정보의 선별과 비판적 수용, 온라인 종교 활동에의 책임 있는 참여라는 종교문해력의 실천 역량과 자연스럽게 접속된다.

이러한 확장은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과 맞물린다. 지향해야 할 것은 특정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종교 현상 일반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종교에 관한 교육’이며, 이는 종교교육학계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방향이기도 하다(Ye & Shim, 2025). 해외 사례는 이 방향의 현실성을 입증한다. 무종교화가 가장 앞선 북유럽에서 오히려 종교문해력이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였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스웨덴의 경우 종교교육에서 종교문해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교교육이 편견과 갈등을 줄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영국을 비롯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의

종교교육이 신앙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Kim, 2025: 80-81). 이는 탈종교화와 종교교육이 상쇄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동반 관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인이 줄어들수록 종교를 이해하는 능력은 더 희소해지고, 그만큼 더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종교에 관한 교육’이 신앙 그 자체를 배제하는 교육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종교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맹목이 아닌 깊은 성찰 속에서 정립하게 함으로써 신앙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향점은 특정 교단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종교라는 보편적 문화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있다. 요컨대 확장된 종교문해력 교육은 교리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 현상을 통찰하는 인문적 역량을 길러주며, 이는 신행(信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물론,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자와 타문화를 오해 없이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 3. 탈종교 시대 종교 갈등과 사회통합

확장된 종교문해력이 감당할 최종 과제는 사회통합일 것이다. 한국에서 종교는 이미 통합보다 균열의 축으로 기울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전국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통합이 아닌 사회균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종교 집단 간 호감도와 사회적 거리에서 유의미한 격차를 확인한 바 있다(Park & Kim, 2013). 이는 사회 구성원이 종교 간 갈등을 크게 인식할 경우 종교 공동체 전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 성향이 얽히는 오늘날의 양극화 국면에서 이러한 균열은 더욱 증폭될 소지가 크다.

탈종교 시대의 갈등은 그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 전통적 교단 간 마찰에 더해, 일부 집단의 종교적 일탈이 미디어를 통해 폭로되면서 종교 전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확산하는가 하면, 종교 관련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알고리즘을 타고 디지털 공간에서 빠르게 유통된다. 한편, 제도 밖 영성의 영역에서는 상업주의와 종교적 편취가 올바른 판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을 노린다. 갈등의 전선이 교단 사이에서 개인과 사회 사이로, 다시 온라인 공론장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공공성 논의가 종교 연구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것은 자연스럽다.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은 종교와 다른 사회 영역 간 매개물이 되고 있다(Yoon & Ko, 2022: 31).”는 관찰처럼, 종교의 공적 역할을 묻는 물음은 이제 교단 내부의 자성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과제는 단순히 종교인 사이의 화해만을 뜻하지 않는다.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무종교인은 결코 균질한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그 내부의 사회·인구학적 결을 읽어내지 못하면 ‘종교인 대 무종교인’이라는 또 하나의 거친 이분법이 생겨나기 쉽다. 종교를 향한 냉소가 이웃 종교인에 대한 혐오로, 반대로 신앙적 열심이 무종교인에 대한 계몽적 우월

심으로 굳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양쪽 모두에게 상대를 읽는 종교문해력이 필요하다.

종교문해력은 이 지점에서 시민적 역량으로 재정위된다. 종교를 아는 것은 특정 신앙을 위한 소양이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통된 삶의 기술이다. 말하자면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의 평화 공존은 물론 바람직한 신행을 돕는다(Seong, 2024: 9).”라는 종교문해력의 효용은 무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편견은 무지에서 자라고, 혐오는 오해를 먹고 산다. 보이지 않는 종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무종교인의 영적 추구를 존중할 수 있고, 디지털 종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온라인의 종교 혐오와 허위 정보에 중립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존중과 거리 두기가 만들어내는 공존은 서로를 단순 배려하거나 참아내는 소극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 곧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때 사회통합은 비로소 온전해진다. 종교문해력 교육이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나아가 상생의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계 가능한 목표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목표를 교육의 내용과 방법, 기반으로 구체화한다.

## Ⅳ.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

### 1. 사례 기반의 교육 내용

종교문해력 교육 재구성의 첫머리는 교리에서 사례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기존 종교 교과가 세계 종교의 역사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개관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면, 확장된 종교문해력 교육은 학습자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종교 현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흥미 유발 전략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는 정의상 제도화된 텍스트가 아니라 흩어진 양상으로 존재하므로, 생생한 사례를 경유하지 않고는 그것을 종교적 현상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종교 영역은 최근 축적된 실증 사례 연구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종교의 빈자리를 상담이 채운다.”고 할 만큼 성장한 초월영성상담, 심리치료에 깃든 영성, 전시 공간과 음악 공연에 스며든 초월의 감각, 기후위기 앞에서 모색하는 생태적 영성은 제도 밖 영성의 대표적 표본이다(Chung, Choe, & Jang, 2025: 20; 21-71). 여기에 명상・요가・웰빙 문화, 자기계발 담론의 종교적 코드, 팬덤과 취미 활동의 유사종교적 사례 등을 더하면(Irons & Lee, 2022), 학습자는 ‘종교 없는 시대’에 만연한 종교성과 종교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각 사례에는 비판적 쟁점을 내포한다. 치유를 표방한 상업주의, 영성 산업의 과장 광고, 착취적 신앙집단의 포섭 수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다룸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와 판별이 분리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학습자가 실재하는 피해와 해악이라는 객관적 잣대와 정통과 이단이라는 교단 내부의 시각을 분리해 판단하도록 돕는 한편, 낯선 소수 신앙에 대한 무지가 편견과 혐오로 전이되지 않도록 성찰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디지털 종교 영역은 한국 온라인 종교문화 연구가 풍부한 소재를 제공한다. “온라인 환경에 특화된 종교적 상상, 표현, 실천 등이 존재할까?”라는 물음 아래 분석된 성지 밈과 소원 댓글, 이른바 “성지순례 왔습니다. ~하게 해주세요”라는 관용구의 유행은, 종교적 어휘가 세속 공간에서 재활용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교육 자료이다(Shim, 2023: 287). 여기에 온라인 예배와 메타버스 종교 공간, 종교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 AI 상담과 종교 챗봇,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로 변모한 무속까지, 디지털 네이티브 학습자의 미디어 경험과 직결된 사례들이 즐비하다. 또한 신종교와 문화콘텐츠의 결합 역시 종교와 대중문화의 경계 이해를 돕는 소재가 된다(Shin, 2017). 이 사례들은 각기 고유한 쟁점과 맞물린다. 익명성과 확산력이 결합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종교 관련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빠르게 번지고, 종교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는 알고리즘은 이용자를 편향된 믿음에 반복 접하게 해 종교적 반향실(echo chamber)에 가둔다. 나아가 AI 챗봇과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면서, 온건한 권유와 강압적 모집, 단순한 정보 제공과 신앙적 세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온라인 포교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교육은 학습자가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검증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자신이 소비하는 디지털 콘텐츠가 알고리즘의 선별적 결과물임을 의식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환경에서 신앙을 권유받을 때도 자신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를 갖추게 해야 한다.

이 두 모듈은 독립적으로 분리 편성하기보다 상호 교차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상 앱은 보이지 않는 종교이자 디지털 종교이며, 온라인 타로 상담은 비제도 영성이자 플랫폼 경제의 상품이다. 사례들이 지닌 중첩성은 두 현상의 구조적 연동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모든 사례는 전통 종교와의 연속선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소원 댓글은 기복 신앙의, 온라인 성지순례는 순례 전통의, AI 상담은 고해와 상담 전통의 변형태임을 확인해 나갈 때, 학습자는 외형적 새로움에 현혹되지 않고 종교사의 긴 호흡 속에서 현재의 종교적 현상을 읽는 안목을 얻게 된다.

## 2. 디지털 리터러시 결합형 교육 방법

내용의 재구성은 방법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디지털 종교를 칠판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 교육 방법의 기본 원리는 내용과 매체의 일치, 곧 디지털로 매개된 종교 현상을 디지털 도구로 분석하고 제작하며 배우는 것이다.

첫째, 분석형 학습이다. 학습자가 직접 종교 유튜브 채널, 명상 앱, 온라인 종교 커뮤니티를 관찰하고 그 메시지 전략과 수익 구조, 알고리즘 노출 방식을 분석하는 활동은 미디어 리터러

시와 종교 이해를 동시에 함양한다. 종교 관련 허위 정보 판별 실습, 혐오 표현 사례 분석이 여기에 결합된다. 둘째, 제작형 학습이다. 종교문화를 소재로 한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제작,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제는 수용자에서 생산자로 관점을 전환해 콘텐츠의 문법을 몸으로 익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학 디지털 교과서의 창작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제안한 선구적 구상은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Koo, 2013). 셋째, 체험형 학습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종교 공간 체험과 학습 활동(Ok, 2022; Lee & Kim, 2022),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마음챙김 프로그램(Ryu, 2023)은 시공간 제약 없이 종교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넷째, 탐구형 학습이다. 온라인 종교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코딩을 활용하는 연구 방법(Shim, 2024)을 교육용으로 용이하게 재구성하면, 댓글 텍스트 분석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탐구 과제로 확장할 수 있다. 학습자는 스스로 수집한 자료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 현상을 인상이나 통념이 아닌 근거에 기반해 해석하는 태도를 익히게 된다.

다섯째, 이상의 활동을 관통하는 토론형 학습이다. 사례 기반 토론은 보이지 않는 종교 영역에서 특히 긴요하다. 명상 수련의 경험, 사주와 타로에 대한 태도, 무종교인의 정체성 등과 같은 주제는 정답이 없는 만큼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신앙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상대의 관점을 경유해 보는 경험은 공감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디지털 종교 콘텐츠를 함께 관찰하고 그 종교적 함의를 논의하는 활동은 온라인상의 파편화된 콘텐츠 소비 형태를 성찰적 이해로 전환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 운용의 요체는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계이다. 대면 수업이 이론적 개념 정립과 토론을 담당하고, 온라인 환경이 사례 탐색과 제작 및 공유를 맡는 혼합형이 그 구체적 형태이다. 이는 교육 형식 자체에 학습 대상인 혼종적 종교 지형을 반영하도록 설계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일치를 구현하는 실천적 방안이 된다.

이러한 방법의 실효성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신학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수업을 설계·운영한 결과 수강생의 리터러시 수준이 수업 전 3.11에서 수업 후 4.39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보고(Kim, 2024: 828)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수업이 짧은 기간에도 실질적 역량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사례는 목회자 양성이라는 특정 목적을 지닌 신학교육 현장에서 도출된 결과로, 중립적 종교문해력 교육에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방법론적 시사점 자체는 유효하다. 물론 기술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 지적(Cho, 2025: 100-102)이 환기하듯 도구의 도입이 곧 교육의 혁신은 아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설계자'이자 '정서적 촉진자'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논의(Yun, 2025: 122) 역시 종교문해력 교육에 그대로 적용된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종교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원칙이 방법 설계 전체를 관통해야 한다.

### 3. 교양교육 제도화와 교재 개발

내용과 방법을 담아낼 그릇은 제도이다. 현실 진단에서 출발하면, “대다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은 특정한 종교적 배경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 고등교육의 현주소이다(Na & Youn, 2022: 96). 종립대학의 채플과 교리 과목이 종교교육의 대명사가 되는 동안, 종교 일반에 대한 교양교육은 국공립대학과 일반 사립대학에서 사실상 공백으로 남았다. 종교문해력 교육의 제도화는 이 공백을 메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관건은 성격 규정이다. 종교교육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종교문해력 교육은 특정 종단의 이해와 무관한 보편 교양으로서 모든 대학에 개설될 자격을 얻는다(Chung, 2002: 270).

제도화의 실마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가 진로 선택 교양 교과로 편성되어 종교문해력 함양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Youn & Na, 2024: 74), 초·중등 단계에 마련된 이 기반을 대학 교양교육과 연결하는 계열화 설계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사례 기반 콘텐츠 및 디지털 리터러시 결합형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수준에 맞춰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삶과 종교’ 등 초·중등 교과 과정에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사주 앱, 온라인 성지 밈, 종교 유튜브 콘텐츠처럼 청소년의 일상적 미디어 경험과 맞닿아 있는 사례는 오히려 초·중등 학습자에게 직관적이고 친숙한 도입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대학 교양교육의 심화 모듈과 상호 연계함으로써 학교급 간 단절 없는 종교문해력 교육의 계열화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대학 단계에서는 비종교인 수강생이 다수인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의 관심사와 사회적 쟁점, 예술 작품 등을 매개로 한 융합형 수업 모델(Yun, 2023: 59)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례 기반 모듈은 이러한 융합형 교육과정 설계에 유용하게 투입·활용될 수 있다.

교재 개발은 제도화를 구현하기 위한 물적 토대이다. 교재 개발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중립성으로, “제도권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Youn & Na, 2024: 75).” 이는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를 다룰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정 영성 실천을 일방적으로 권장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서술, 그리고 무종교인의 관점을 소외시키지 않는 내용 구성이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는 갱신 가능성으로, 온라인 종교문화는 변동성이 크고 유행 속도가 빨라 인쇄 중심의 종이 교재 개정 주기로는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로의 전환과 지속적 사례 업데이트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교재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수자의 역량이다. 종파교육과 종교교육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포함한 교수자의 자질 향상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Na & Youn, 2022: 95), 여기에 디지털 종교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이 새로운 필수 요건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교재와 수업의 내용적 깊이를 더하는 또 하나의 자원은 지역이다. 산악 지형과 어우러진 전통 사찰의 종교문화, 농어촌 공동체의 생활 종교, 한국 자생 종교의 문화유적 등 각 지역에 축적된 종교문화 자산은 사례 기반 교육 내용의 현장판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종교문화 답사를 체험 학습 형태의 모듈로 편성하면 디지털 사례에 치우치기 쉬운 교육 내용에 물질적·장소적 현장성을 보충할 수 있다. 이는 보이는 종교와 보이지 않는 종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종교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게 하는 균형추가 된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화는 대학 담장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종교문해력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 요건으로 제시한 "①명확한 비전 제시, ②단계적 접근, ③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시사하듯(Seong, 2024: 9), 종교교육학계가 내용을 검증하고 종단이 교육 현장을 열며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삼각 협력이 필요하다. 종교의 공공성 논의가 사회 전반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지금, 종교문해력 교육은 그 논의를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 Ⅴ. 결론

본 연구는 무종교인이 과반을 차지한 한국 사회에서 종교문해력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탈종교 시대의 종교 지형이 종교의 소멸이 아닌 구조적 재편임을 확인하였다. 세속화와 과학기술의 도전, 특히 AI의 부상은 전통 종교의 위상을 흔들었지만, 종교적 욕구는 제도 밖의 영성으로, 또 디지털로 매개된 신앙 실천으로 자리를 옮겨 존속하고 있다. 두 현상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를 증폭하는 구조적 연관성을 이루며, 이것이 오늘의 종교 현상을 읽는 열쇠임을 밝혔다.

이어서 종교문해력 개념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기존 논의가 제도 종교를 암묵적 전제로 삼아 온 공백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식·공감·실천의 역량 틀을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두 현상으로 확장하는 재개념화를 제안하였고, 확장된 종교문해력이 종교 갈등의 예방과 사회통합이라는 공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이 구상을 사례 기반의 교육 내용,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계한 교육 방법, 교양교육 제도화와 교재 개발이라는 세 층위로 구체화함으로써,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이 선언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지니는 함의는 학문적·실천적·사회적 차원의 세 가지이다. 학문적으로는 종교문해력 연구의 외연을 비제도적·디지털 종교성으로 넓혀 종교교육학과 종교사회학, 미디어 연구를 잇는 융합적 접점을 마련하였다. 실천적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삶과 종교'에서 대학 교양교육에 이르는 계열화의 밑그림과 수업 설계에 적용 가능한 모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으

로는 종교문해력을 특정 신앙의 소양이 아닌 다원 사회의 시민적 역량으로 재정위함으로써,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서로를 읽어내는 공통의 언어를 교육이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함의를 실현하는 정책적 제언은 명확하다. 첫째, 종교문해력 교육을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교양 체계에 종교 중립적 교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화 주기가 빠른 온라인 종교문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교재 개발과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수자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 종교학적 소양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편성해야 한다. 넷째, 지역에 축적된 종교문화 자산을 답사형 체험 학습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사례에 치우치기 쉬운 교육 내용에 현장성을 보충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과제는 종교교육학계·종단·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덧붙여 이 글의 부제인 '조화'가 뜻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의 조화란 두 현상을 하나의 교육 틀 안에 병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비가시적 영성의 깊이와 디지털 매개의 확산력을 함께 읽어냄으로써, 제도 종교 중심의 낡은 지도와 파편화된 새로운 현상 사이에 통합적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나아가 전통 종교와 제도를 벗어난 영성, 종교인과 무종교인, 오프라인의 장소성과 온라인의 연결성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상생하는 다원적 종교 생태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종교문해력 교육은 그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제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아직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현장 적용과 효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의 사례는 변화 속도가 빨라 지속적 갱신을 요구한다. 주류 종교 담론에서 소외된 소수 신앙 집단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정립하는 방식에 관한 미시적 탐구, 초·중등 단계에 특화된 종교문해력 교육과정 및 교사 재교육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계, 종교문해력의 관점에서 한국종교사를 재독해하며 정치·경제·법 등 인접 분과와 접하는 융합 연구, 그리고 세속주의와 세속화 과정에 관한 사회과학적 대화가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줄었지만, 종교를 읽어야 할 이유는 오히려 늘어난 시대에,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 References

Ahn, S. (2023).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Study of New Religions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49*, 35-60.

Campbell, H. A. (2012). Introduction: The Rise of the Study of Digital Religion. Campbell, H. A. (ed.). *Digital Religion: Understanding Religious Practice in New Media Worlds*. London: Routledge.

Cho, Y. K. (2025).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0*, 91-108.

Chong, C. Y. (2024). A Study on the Religiously Unaffiliated in Korea.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12*(2), 135-168.

Chong, C. Y. (2025). Characteristics of Religiously Unaffiliated and Prospects for New Religions. *Hyonsang-gwa-Insik*, *49*(4), 129-152.

Chung, C. H. (2002). Teaching Religion: Its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Korea. *Journal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41*, 269-338.

Chung, C. H., Choe, H. S., & Jang, S. M. (2025). A Discussion on SBNR(Spritual But Not Religious). *Journal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64*(1), 1-78.

Gallup Korea (2026. 3. 26.). Religion of Koreans 1983-2025. Retrieved 2026. 8. 25., from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628

Irons, E., & Lee, K. W. (2022). In the Realm of Gods and Humans: Quasi-Religions and New Spirituality in Contemporary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46*, 51-88.

Kang, I. C. (1997). A Study on the Korean 'Religious Nones'. *Society and History, 52,* 87-118

Kim, H. S. (2024). A Case Study on Cultivating Digital Literacy for Ministry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Theology and Praxis*, *88*, 813-836.

Kim, S. H. (2022). A Study of Digital Religion and Online Church. *Theology and Praxis*, *79*, 757-782.

Kim, Y. J. (2025). From Religion to Non-religion: the Paradigm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3*, 69-87.

Koo, B. M. (2013). Development Directions for a 'Religion' Digital Textbook.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1*, 93-120.

Koo, H. C. (2022). A Study on the Concept of 'Religion' in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Religion and Culture*, *42*, 71-97.

Lee, J. C. (2025). Dechurched Believers ("Canaan Christians") and Multilayered Faith: The Phenomenon of Korean Protestantism in the Post-Religious Era and Its Future.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13*(1), 1-29.

Lee, S. Y., & Kim, N. Y. (2022). The Metaverse Christian Education Platform in the Post-Corona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1*, 341-370.

Lim, Y. B. (2025). A Study of Mobility in the Korean Religious Landscape.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13*(1), 149-216.

Luckmann, T. (1967). *The Invisible Religion: The Problem of Religion in Modern Society.* New York: Macmillan.

Moon, Y. B. (2008). New Horizons of Religious Studies in an Age of Information Medi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52*, 191-228.

Na, K. S. (2026). Re-enchantment in the Age of Disenchantment: Shamanic Representation in Korean Popular Culture and the Cultural Unconscious.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8*(2), 1279-1298.

Na, K. S., & Youn, J. K. (2019). Tasks and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Study with Regard to the Increase of Religious Illiteracy Rate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0*, 119-142.

Na, K. S., & Youn, J. K. (2022). Analysis of Religious Education Status as General Education and Research on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1*, 81-99.

Ok, J. H. (2022).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by Metavers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0*, 37-74.

Park, B. J., & Kim, B. S. (2013). Religion as an Axis of Social Cleavage: Focusing on Inter-Religious Differences in Values and Attitudes. *Jou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27*, 221-252.

Park, B. S. (2023). Religious Literacy in Multi-religious Societies: Focusing on Competency-Based Religious Literacy Diagnosis. *Religion and Culture*, *44*, 41-67.

Ryu, H. M. (2023). Digital Transformation of Mindfulness Education: Research Trends and Prospects of Mindfulness Education Using Digital Technolog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5*, 245-262.

Seong, H. Y. (2017). 'Religion of no Religion' and New Religiosity: Focusing on the Encounter of Secular Mysticism and Depth Psychology. *Religion and Culture*, *32*, 1-28.

Seong, H. Y. (2024). The Meaning and Role of 'Religious Literacy': Focusing on Social Applic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84*(2), 9-36.

Shim, H. J. (2023). The Rise of the Holy Land(聖地) Meme and Its Implications for Online Religious Culture: Text Analysis of Comments on the 'Cookie.com' Pos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83*(2), 287-324.

Shim, H. J. (2024). Religious Cultural Research Using Coding: The Potential of Digital Religious Studie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51*, 1-39.

Shim, H. J., Lee, W. S., Oh, J. H., & Lee, Y. N. (2023). Online Religious Culture in Korea: Focusing on Religious Activities and Special Cases of Religious Expression.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5*, 187-226.

Shin, K. C. (2017). New Religion and Cultural Contents: Present State and Futur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37*, 1-20.

Woo, H. R. (2016). 'Fluid Religion' as Contemporary Religious Phenomena. *Religion and Culture*, *30*, 33-65.

Woo, H. R. (2022). Nonreligion as a New Relig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46*, 1-50.

Ye, C. H., & Shim, T. E. (2025). The Analysis of 30 Years of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0*, 1-18.

Yoon, Y. B., & Ko, B. C. (2022). Discourse and an Agenda for Religious Publicness: Faith, Sacred Objects, and Holy Site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3*, 31-66.

Youn, J. K. (2007). Theory of Religious Education in Daesoon Thoughts: Based on the Educational Human Model of In-J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4*, 245-263.

Youn, J. K., & Na, K. S. (2024).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8*, 63-78.

Yun, D. K. (2023). A Study on the Direction, Content, and Method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Age of Secularization.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55*, 59-84.

Yun, S. W. (2025). Paradigm Shift in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and the Redefinition of Teachers' Role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0*, 109-126.

김윤정 (2021). EBS 당신의 문해력. 고양: 한국교육방송공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J. (2021). *EBS Your Literacy.* Goyang: EBS BOOKS.